

중세동방에서 유물론철학의 발전

조국철

중세동방에서 유물론철학의 발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세동방나라들에서의 철학사상발전과 인류철학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고 동방민족의 우수성을 체득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서방과는 달리 중세기 동방에서는 신흥귀족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유물론철학이 계속 발전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59페이지)

중세기 서방에서는 종교가 지배적이였으며 유물론은 사상조류로서 존재할수 없었다. 말그대로 유럽에서 중세기는 교회가 모든것을 지배한 암흑의 시기였다.

중세유럽에서는 신학의 테두리안에서 《보편론쟁》이라고 불리우는 실재론과 유명론의 투쟁이 진행되였다. 실재하는것은 개별적인 사물뿐이라고 주장하는 유명론은 당시에 진보적인 사상이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종교에 복무한 스콜라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였다.

유럽철학사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철학사를 개괄하여보게 되면 고대에 소박한 유물론적세계관이 나타났다가 중세기에는 그것이 소멸된것으로 된다.

이와는 달리 중세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방에서는 종교관념론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유물론철학이 독자적인 조류를 이루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3세기 전반기인 고려시기 리규보(1168—1241)에 의하여 유물론적관점으로 일관된 《원기》설이 제기되어 《천》, 조물주의 인격적주재성이 부인되고 종교관념론철학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되였으며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우리 민족의 유물론적견해가 확고히 고수되게 되였다.

15~16세기에 들어와 김시습, 서경덕을 비롯한 유물론철학자들에 의하여 유물론은 관념론에 비한 궁극적인 우세를 보장할수 있었다.

15세기 김시습(1435—1493)은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이 기에 의하여 형성되였다고 주장하였을뿐아니라 동방철학에서 우주자연의 시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쓴 《태극》을 물질적인 기로 이해함으로써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기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기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원기가 만물을 주재한다.》(《매월당문집》 권4 론위치필법삼대론)라는 《원기주재》설을 내놓았다. 뿐만아니라 그는 기를 세계의 통일성의 기초로 본데 토대하여 세계의 물질적통일성을 주장하였으며 리는 그 어떤 실체가 아니라 사물운동의 내재적법칙성일뿐이라고 주장하여 리기호상관계에 대한 견해에서 유물론적립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그는 유물론적인 우주본체론과 무신론사상을 결합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종교신비주의와 숙명론을 비판하는데서 앞장섰다.

16세기 서경덕(1489—1546)은 자기의 독창적인 사색으로 투철한 기일원론적자연관을

수립함으로써 조선철학사뿐만 아니라 세계철학사발전에도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에 의하여 객관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이 물질적인 기로 이루어지고 자기자체로 끊임없이 운동변화한다는 기일원론철학의 근본원리가 제기되었다. 그는 《밝고 허한 기가 무한한 공간에 가득차 있어 크게 모인것은 천지를 이루고 작게 모인것은 만물이 된다.》(《화담집》 권2 잡저 귀신 사생론)라고 하면서 세계의 본질, 시원에 대한 유물론적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당시 철학의 중심문제로 나섰던 리기문제를 기일원론적립장에서 해결하였다. 그는 선행한 유물론자들의 견해를 계승하면서 물질적인 기와의 관계에서 리가 가지는 속성, 법칙성으로서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원리적으로 보다 깊이 론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태허》설을 제기하여 물질적인 기가 세계의 시원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기로부터 발생하여 각이하게 전개되는 우주만물의 형성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중세철학사상발전에서 처음으로 기불멸설을 제기하고 물질의 무시무종에 관한 사상을 철학리론적으로 정립하였다.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유물론철학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김시습,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은 그후 장유, 임성주 등 진보적학자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그 진리성이 옹호되었으며 가일층 발전되었다.

17세기 장유(1587-1638)는 서경덕의 철학을 계승하여 세계의 시원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물질적인 무극자, 태허를 세계의 시원으로 내세우고 리기호상관계문제를 유물론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인간의 정신현상을 물질적기로서 설명하였다.

18세기 임성주(1711-1788)는 세계만물은 물질적기에 그 시원을 두고있으며 하나의 기의 운동과정에 모든것이 이루어졌다는것 따라서 세계의 본질은 물질적기라는 《기일분수》설과 리를 기의 운동의 내재적합법칙성으로 규정한 《자연처》사상을 제기하여 리기호상관계문제에 대한 유물론적립장을 밝히었다. 이것은 서경덕의 《태허》설과 《기의무리》(기밖에 리가 없다)사상을 시대적조건에 맞게 발전시킨 사상이다.

성리학적관념론과의 투쟁속에서 장유와 임성주는 유물론의 기치를 추켜들으로써 16세기 유물론철학발전의 개화기를 마련한 서경덕과 19세기 유물론철학의 대표자 최한기사이에 명맥을 이어주는 교량자적역할을 수행하고 중세 우리 나라에서 유물론철학이 줄기차게 계승발전되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유물론은 그후 홍대용(1731-1783), 박지원(1737-1805), 리규경(1788-1863), 최한기(1803-1879)에 의해서도 면면히 발전하였다.

특히 최한기는 19세기에 종래 기일원론적유물론을 근대자연과학과 결부하여 전개하고 발전풍부화시키었다.

그는 《천지에 꼭 차있고 만물에 침투되어있으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것이냐 모이지도 흩어지지도 않는것이냐를 막론하고 기아닌것이 없다.》(《기축체의》 신기통 권1 체통 천인지기)라고 하면서 기로부터 천지가 발생하고 천지로부터 사람과 만물이 발생하는데 천지만물을 생성하는것은 오직 하나의 기일뿐이라고 하였으며 기에 의한 세계의 통일성, 시공간적인 무한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를 형질과 같은 감각적속성을 가지고있으며 모든 사물현상에 공통적인 물질적실재로 이해하고 다양한 천지만물의 통일성과 차이성, 다양성을

《천지의 기》와 《형체의 기》에 의하여 설명함으로써 철학적범주로서의 물질개념과 세계의 일반적특징에 대한 이해를 심화발전시켰다. 이와 함께 리와 기를 분리시키는 견해를 반대하고 리가 기와 뗄수 없는 기의 법칙, 론리라는것을 론증하였다. 그는 기일원론철학을 집대성하여 체계정연한 유물론철학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중세시기의 철학적론쟁을 유물론의 승리로 끝맺는데 기여하였다.

중세기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중국에서도 유물론철학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1세기 왕충(27-약 97)은 신비적목적론과 그에 기초한 종교미신을 비판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세계의 물질적본질을 해명하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 원기일원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천지에서 기가 합해져 만물이 저절로 생긴다.》(《론형》)라고 하면서 세계만물의 시원을 기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기는 고정적인 형체를 갖추지 않고 끊임없이 취산운동을 하는 영원한 물질적재료이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기로 이루어진 세계만물은 자연적으로 발생변화하며 그것은 기자체가 그 어떤 목적의지도 없는 자연적인것이기때문이라는것을 밝혔다. 이처럼 그는 원기일원론을 제기하여 자연은 물질적인 기로 이루어졌다는것을 밝히고 그에 의거하여 신비주의적목적론을 극복하고 세계의 물질성을 해명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육체와 정신의 호상관계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그에 대한 유물론적리해를 확립함으로써 중세중국의 유물론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왕충의 유물론철학은 그후 배위와 범진에 의하여 보다 심화되었다.

3세기 배위(267-300)는 세계를 허무한것으로 여기는 현학적세계관을 반대하여 세계의 실재성을 밝히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그는 《승유》론을 제기하여 무가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는것을 해명하였으며 사물은 자기의 법칙과 존재조건에 의거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현학의 허무주의적견해와 관점을 비판극복하고 세계의 실재성을 해명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기의 자연적운동변화의 원인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왕충의 유물론적견해를 보다 심화시킨것이였다.

6세기 범진(450경-515경)은 정신을 독자적인 실체로 전화시키고 령혼불사를 주장하는 불교를 반대하면서 육체와 정신의 호상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하여 《신즉형이고 형즉신이다. 이때문에 형이 있으면 신도 있고 형도 없어지면 신도 소멸된다.》(《신멸론》)라고 하면서 육체는 곧 정신이고 정신은 곧 육체로서 육체와 정신은 서로 뗄수 없다는 《형즉신》사상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철학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대한 유물론적리해를 확립한 왕충의 유물론철학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킨것이라고 볼수 있다.

11세기 장재(1020-1077)는 기에 대한 철학적리해를 심화시켜 성리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기일원론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기를 세계의 근원으로 보면서 그것을 상(일정한 모양이나 상태)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실체로 이해하였다. 그는 《기라는것은 특별한것이 아니고 증발하여 그윽해지거나 응결되는것이며 눈에서 접한 후에 아는것이다.》(《정몽》)라고 하면서 흩어지거나 모이면서 일정한 모양이나 상태로 나타나며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식할수 있는 실체가 기라고 하였다. 이것은 기를 단순히 구체적인 모양이나 형체를 가진 사물의 물질적재료라고만 이해하던 이전시기의 견해에 비하여 보다 추상화된 견해이다. 그는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되는 세계는 《태허》의 기가 만물로 되고 만물이 《태허》에 돌아가는 과정속에 있다고 하였으며 기는 하나의 물질적실체이면서 동시에 서로

대립되는 음과 양을 내포하고있다는 의미에서 《일물양체》라고 하였다. 그리고 리는 기의 작용이라고 하였다. 그의 견해는 세계에 대한 신비주의적외곡을 부정하고 기일원론철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유물론적견해이다.

장재의 기일원론철학은 17세기에 와서 심학의 영향속에서나마 황종회에 의하여 계승되고 고염무에 의하여 심화되었으며 왕부지에 의하여 총화되었다.

황종회(1610-1695)는 리와 기는 실체에 있는 두가지 이름이고 두개의 실체가 하나로 결합되는것이 아니라 리해로부터 《천지사이에 차있는것은 모두 기이다.》(《명유학안》)라는 유물론적견해를 제기하여 심학의 영향속에서나마 장재의 기일원론철학을 계승하였다.

고염무(1613-1682)는 세계의 모든 사물들과 그의 변화는 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기를 떠나 정신이나 리가 있을수 없다는 기와 정신, 리의 불가분리성을 밝혀 기일원론철학을 심화시켰다.

왕부지(1619-1692)는 세계는 물질적기로 총만되어있고 리는 기의 리라는것을 밝힘으로써 허무주의와 관념론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기일원론의 승리를 확증하였다.

중세기 인디아에서도 힌두교의 외피속에서나마 유물론적사상이 일정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중세동방철학에서는 서방과는 달리 관념론에 맞서 유물론이 하나의 사상조류를 이루고 끊임없이 발전하여왔으며 여기에 중세동방철학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중세기 서방과는 달리 동방에서 유물론이 사상조류를 이루고 끊임없이 발전해오게 된 것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동방인민들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자기의 재능과 근면성으로 하여 과학과 문화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온것과 관련된다.

중세기 생산력과 과학문화의 우수한 발전은 중세동방에서 유물론철학발전의 중요한 전제로 되었으며 이것은 관념론에 맞서 유물론철학이 발전해올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중세동방철학사상에서의 유물론의 발전은 당시 신흥귀족세력의 리해관계를 대변한것으로서 중세동방나라들에서의 사람들의 사유발전과 사회발전에서 긍정적인역할을 놀았다.